

내란세력 준동 비상시국, 민주노총 전면적인 투쟁 선포

-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 1박2일 농성 전개
- 3천여 참가자 "파시즘 체제 세우려는 내란세력 준동, 끝나지 않았다"
- 나흘째 단식투쟁 중인 양경수 위원장 "“전력을 다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민주노총이 "윤석열이 석방되고 파면이 불확실해진 비상시국에 또다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표명했다.

민주노총 대표자 3천 명은 어제(10일) 긴급지침에 따라, 1박 2일 농성을 결의하며 비상하게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내란시도는 실패했지만, 반노동 반민중적 파시즘 체제를 세우려는 내란세력의 준동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이 권좌에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계엄령을 거리낌 없이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 더 이상 살 수 없으며 시민의 힘으로 실현한 윤석열 탄핵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외쳤다.

나흘째 단식투쟁 중인 양경수 위원장은 "지금 내란수괴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노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도, 공공성이 강화되어 시민이 행복한 나라도, 전쟁위기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한반도도,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도, 모든 것의 전제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력을 다해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8시 30분까지 가맹노조별로 광화문 일대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해 광장으로 모이자는 내용의 집회, 선전전,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시부터 비상행동 주최 집회 참석 후, 22시부터 민주노총 야간집회를 개최하며 1박 2일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

- 1. 개요
-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 3. 투쟁 결의문

[첨부] 대회 사진

[붙임] 1. 대회 개요

- 일시 : 2025,3.11(화) 15:30 ~ 3.12(수) 09:30
- 장소 : 광화문(동십자각 - 광화문 일대)

구분	일정	세부내용
3.11(화)	15:30~16:40	결의대회
	16:40~19:00	가맹노조 별 투쟁 집행 토론 및 결의
	19:00~21:00	비상행동 집회 및 행진
	22:00~24:00	야간집회
	집회후	노숙농성 (광화문 일대)
3.12(수)	07:30	대오정비
	07:50~08:50	아침선전
	09:00~09:30	마무리집회 및 해산

[붙임]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긴급한 결정이었음에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윤석열의 석방을 지켜보며 긴박한 정세에 대한 인식의 일치와 투쟁에 주저함이 없는 민주노총의 기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윤석열 파면의 결의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투쟁!

활짝 웃으며 유유자적 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며 동지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양회동 열사의 원혼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듯했습니다.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밤을 지새우며 투쟁했던 우리의 결심이 조롱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의 요구가 부정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내란수괴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의 복귀를 준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했던 자가 다시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살길 찾기에 바빠 보였던 군 장성들이 거짓으로 계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총책임자 김용현은 감옥에서 폭동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내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펼쳐지고 계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공수처도 법원도 윤석열을 풀어주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공수처장, 윤석열을 석방한 판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공고한 권력유지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착취와 탄압의 카르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도, 공공성이 강화되어 서민이 행복한 나라도, 전쟁위기에 벗어난 평화로운 한반도도,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도, 모든 것의 전제는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세력의 척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 광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동지들! 임단협 준비와 한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바쁜 나날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권좌에 복귀한다면 임단협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동조건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투쟁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과 투쟁에 우선해서 윤석열 파면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고비마다 선봉에서 투쟁해온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아닙니까.

동지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조직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전력을 다합시다. 한번의 실천과 투쟁이라도 더 나서고 조직합시다. 그래서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노동자가 웃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시다.

민주노총답게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붙임] 3. 투쟁 결의문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노동기본권과 사회대개혁을 쟁취하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선고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12월 3일 내란의 밤,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과 집회시위, 노조 활동의 권리를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선포된 그 시간부터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 법정에서 윤석열은 이미 파면되었으며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절차와 시기만 남아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며 위헌적 쿠데타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내란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세력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시민의 즉각적인 계엄철폐 투쟁으로 아무 일도 못 했을 뿐이다. 저들은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위기를 조장했으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정권에 반대하는 수백 명을 체포, 학살하려고 치밀하게 기획했다.

윤석열의 내란시도는 실패했지만, 반노동 반민중적 파시즘 체제를 세우려는 내란세력의 준동은 끝나지 않았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탄핵반대를 위한 거짓선전과 폭력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회주의를 부정한 채 위헌적 내란동조, 공범세력으로 전락했다. 최근에는 사법부와 검찰에 잔존한 내란동조세력이 해괴한 법 논리를 앞세워 내란수괴를 석방하기에 이르렀다.

내란공범의 준동으로 윤석열이 다시 권좌에 복귀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제2, 제3의 계엄령을 거리낌 없이 벌일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불평등양극화해소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이 전면화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아래 더 이상 살 수 없으며 시민의 힘으로 실현한 윤석열 탄핵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심했으며, 공권력의 무능력으로 내란수괴 체포가 무산될 때 한남동 투쟁에 앞장선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석방되고 파면이 불확실해진 비상시국에 또다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내란수괴 석방한 검찰총장 심우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라!

민주주의 지켜내고 전면적인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2025년 3월 11일

윤석열석방 규탄-파면촉구 민주노총 비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